

2018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대상게임 서류평가 종합의견

국내 트렌드에 맞춘 게임들이 많았으며 해외 벤치마크가 부족한 게임들이 몇몇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마이너한 시정(장르)에 출시하고자 하는 게임들이 다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게임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출시 이후의 개발 유지력을 높게 평가 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블리싱 사업에 맞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